



3연속 3관왕

거침없다, 박태환
값지다, 기록단축

“올림픽 금 자신감 생겼어요”

내달 호주로 전지훈련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독일 베를린에서도 합차게 금빛물살을 일으키며 국제수영연맹(FINA) 2007 경영월드컵(소프트코스) 3개 시리즈 연속 3관왕에 오르는 위업을 달성했다.
박태환은 지난 18일 밤(이하 한국시간) 베를린 SSE 수영장에서 열린 경영월드컵 6차 시리즈 마지막날 자유형 1,500m와 200m에서 모두 우승했다. 이날 첫 경기로 펼쳐진 자유형 1,500m 결

고 우승했다. 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FINA) 경영월드컵에서 얻은 것 가운데 가장 값지던 건 3개 시리즈 연속 3관왕보다 기록단축이다. 특히 그랜드 해켓(호주)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월드컵 기록(14분29초51)에 4초 정도 밖에 뒤지지 않았다. 이어진 여자 자유형 100m를 지켜보고 1,500m 시상식까지 참석한 박태환은 곧바로 자유형 200m 결승에 1분42초22에 골인하며 1분42초39의 비터만을 0.17초 차로 따돌

단축에 또 성공했다. 400m와 1,500m에서 기록 단축은 지구력 보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태환은 스톡홀름에서는 입수할 때 물안경에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3분42초14로 약간 떨어졌지만 베를린에서 3분36초68을 내며 자신의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가장 우려했던 1,500m는 3차례의 레이스에서 한번도 주춤하지 않고 기록단축 행진을 계속했다. 시드니에서 14분49초94를 찍었지만 스톡홀름에서 이를 무려 13초 이상이나 줄인 14분36초42에 골인했고, 베를린에 와서는 14분34초39로 다시 2.03초를 앞당겼다. 이어 스톡홀름에서 1분43초87로 주춤했지만 베를린에서 1분42초22로 기록

“이번 대회를 뛰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지구력 등을 더 보완해 올림픽에서 꼭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이번 시리즈 출전 1차 목표를 지구력 보완에 뒀던 박태환은 “체력이 많이 올라왔다. 80% 정도까지 지구력이 보완된 것 같다.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만 쇼트코스과 정규코스는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박태환은 18일 밤(이하 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SSE 수영장에서 열린 경영월드컵 6차 시리즈 자유형에서 전날 400m에 이어 이날 1,500m와 200m를 모두 우승한 뒤 “열심히 뛰었는데 3연속 3관왕을 이룬 데다 내 기록도 단축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박태환은 “물론 힘들다. 쉬는 시간도 없었다. 시상식에서 메달을 받느라 200m 결승에서는 다른 선수들과 함께 입장하지도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200m 역전 우승에 대해서는 “힘들었지만 6번 레인 파울

비터만이 앞서나가기에 ‘여기서 포기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며 이를 막았다.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자 힘이 났고 결국 우승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리즈 출전 1차 목표를 지구력 보완에 뒀던 박태환은 “체력이 많이 올라왔다. 80% 정도까지 지구력이 보완된 것 같다.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만 쇼트코스과 정규코스는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박태환은 18일 밤(이하 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SSE 수영장에서 열린 경영월드컵 6차 시리즈 자유형에서 전날 400m에 이어 이날 1,500m와 200m를 모두 우승한 뒤 “열심히 뛰었는데 3연속 3관왕을 이룬 데다 내 기록도 단축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박태환은 “물론 힘들다. 쉬는 시간도 없었다. 시상식에서 메달을 받느라 200m 결승에서는 다른 선수들과 함께 입장하지도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200m 역전 우승에 대해서는 “힘들었지만 6번 레인 파울

오초아 질주...태극낭자 4승 그쳐

2007년 LPGA 결산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양강 체제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 2007 미국프로여자골프(LPGA) 투어 시즌은 최강자로 군림해 왔던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부상 후유증으로 단 한차례의 우승컵을 들어보지 못한 가운데 오초아가 새로운 여제의 자리를 확실히 굳힌 해였다. 멕시코의 영웅으로 떠오른 오초아는 19일 끝난 시즌 최종전 ADT 챔피언십에서도 정상에 올라 여덟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시즌 상금 400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오초아는 올해 436만994달러를 벌어들여 상금왕에 올랐고 시즌 최다타수를 친 선수에게 주는 베아트릭스도 차지하면서 2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을 받는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하반기에 상승세를 탄 페테르센도 모두 5개의 우승컵을 수집하며 오초아를 견제했다. 이처럼 오초아와 페테르센의 질주가 계속되면서 미국무대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은 좀처럼 우승 기회를 잡지 못했

다. 2006년 11승을 합작했던 한국자매들은 올 시즌 김미현(30·KTF), 김영(27), 박세리(30·CJ), 이선화(21·CJ)가 1승씩을 올리는데 그쳤다. 흥년이었던 2000년 2승보다는 많았지만 최근 5년간 성적에서는 가장 적은 우승횟수였다. 항상 다승을 책임졌던 한국여자골프의 만년니 김미현과 박세리가 한차례 밖에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다. 한희원(28·힐라코리아)이 출산으로 인해 공백기를 가졌고 박지은(28·나이키골프)이 긴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향도 컸다. 김영이 올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하는 감격을 누리기는 했지만 장정(27·기업은행), 이정연(28) 등 어느덧 중견으로 자리잡은 선수들의 활약도 미흡했다. LPGA 투어 정규대회 코스길이가 나날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타력을 가진 한국 선수가 나오지 않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올 시즌 양강 체제를 이룬 오초아와 페테르센이 장타를 겸비한 선수라는 점에서 한국선수들도 비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비장한 훈련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한국올림픽축구대표팀이 오는 21일 바레인과 최종전을 앞두고 19일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굳은 표정으로 몸을 풀고 있다./연합뉴스

박성화호 허리 살려 바레인 꺾는다

내일 올림픽축구 최종 예선

올림픽축구대표팀은 기량이 좋은 미드필더들이 많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백지훈(수원)이 빠진 탓에도 오장은(대구)을 비롯해 기성용, 이정용(이상 서울), 이근호(대구), 이상호(울산), 이요한(제주) 등 K-리그 소속팀에서도 어린 나이에 주전으로 활약하

는 선수들이 즐비하다. 박성화 감독이 “우리 전력에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할 정도다. 박 감독은 지난 17일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5차전 우즈베키스탄과 원정경기를 준비하면서도 미드필더들을 어떻게 모두 활용할 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하지만 최종예선 시리아와 4차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과 격돌에서도 중원에서 원활한 플레이는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한국은 두 차례 모두 무기력하게 무득점에 그치며 0-0 무승부를 거뒀다. 감독의 평가대로 미드필더들이 매끄럽지 않은 볼 컨트롤과 패스 범실이 잇따라 공격의 물꼬를 터 주지 못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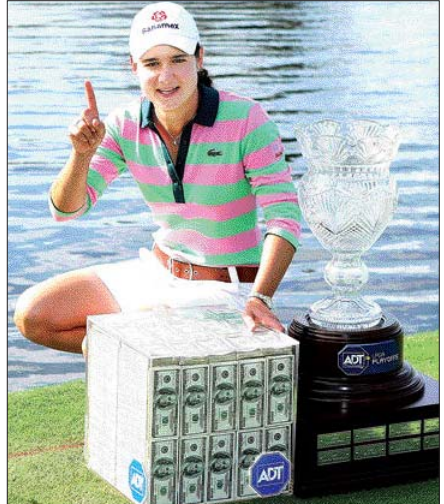
고, 수비에서도 제 몫을 다하지 못해 몇 차례 위기 상황을 맞았다. 미드필더들은 공격의 시발과 1차 수비 저지선이라는 공·수 양면에서 역할을 만족스럽게 해 주지 못했다. 그라운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답답하고 위축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집중력과 투쟁심 부족 등 정신 자세도 아쉬웠다. 오축했으면 전세기를 타고 날아온 원정 응원단 속에서 경기 중 ‘진신차려, 한국이러는 구호까지 터졌을까. 6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여부가 결정될 21일 바레인과 마지막 경기에서도 관건은 역시 미드필더 플레이다. 다행히 바레인이 시리아와 홈 경기에서 1-1로 비기는 바람에 한국은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딸 수 있다. 부담은 줄었다 해도 어떤 경기 내용으로 올림픽 본선에 오르느냐가 중요하다. 그 동안의 부진을 씻기 위해서는 ‘허리’가 살아야 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초아 올 마지막 대회도 우승

김미현 5위, 이정연 6위

LPGA ADT 챔피언십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인 ADT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여제 자리를 확고히 했다. 오초아는 19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트립프 인터내셔널골프장(파 72·6천538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나탈리 걸비스(미국·2언더파 70타)의 추격을 2타차로 따돌렸다. 이로써 오초아는 상금 100만달러와 함께 시즌 최종전에서 올해 여덟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LPGA 투어 최강자의 자리를 굳혔다. 한 시즌에 8승 이상을 거둔 선수는 지난 30년 동안 안니카 소렌스탐과 낸시 로페즈(미국)뿐이었다. 오초아는 또 시즌 상금 436만994달러를 벌어들여 2002년 소렌스탐의 286만3천904달러를 훨씬 넘어선 한 시즌 상금 400만달러를 돌파한 유일한 선수가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00만달러 돈방석 오초아가 우승 트로피와 상금 100만달러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 라운드에 나섰던 한국의 김미현(30·KTF)은 6오버파 78타로 5위에 그쳤고 이정연(28)은 8오버파 80타로 6위, 재미교포 김초롱(23)은 9오버파 81타로 7위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 남궁도·강용 복귀...“FA컵 2연패 명 받았습니다”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2연패를 노리는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에 든든한 지원군이 돌아온다. 지난 두 시즌 광주 상무에서 ‘불사조’로 뽐낸 공격수 남궁도(25)와 미드필더 강용(28)이 20일 상무 복무를 끝내고 친정팀 전남에 복귀한다. 남궁도와 강용은 25일 오후 3시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리는 FA컵 결승 1차전 포항 스틸러스와 홈 경기부터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공격 라인이 살아날 것 같다. 제공권이 좋은 남궁도가 올범 산드로 히로시, 시몬과 함께 공격 편대를 이루게 됐다”며 기대감을 부풀렸다. 2001년부터 전북 현대에서 뛰다 2005년 전남으로 옮긴 남궁도는 본프레레호 시절 국가대표로도 뛰었던 수준급 공격수다. K-리그 통산 132경기에 출전해 23골과 11도움을 올렸다. 특히 186cm의 좋은 체격을 앞세워 공격전에 능하다. 포스트 플레이에 약점이 있

었던 전남으로선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K-리그 148경기를 뒀던 베테랑 강용은 오른쪽 날개로 기용할 만 하다. 왼쪽 측면에 국가대표 김치우가 버티고 있어 좌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카드다. 올 시즌 정규리그 26경기에서 고작 24골 밖에 넣지 못해 공격 축구 흐름에 ‘역행’한 전남이 지원군의 가세로 FA컵에서 화려한 공격력을 펼쳐보일 지 주목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골프·연도 회원권개별 전문기업
독펠러 회원권
골프장 시세/연도: 3,500, 900, 5,200
골프장 시세/연도: 4,300, 12,200
골프장 시세/연도: 8,200, 7,400
상담 문의: (062)351-0095